

지역 매 아리



부랑면 떡동아리 사랑 가득 담은 떡케이크 재능나눔

김제시 부랑면(면장 임영하) 떡동아리 '사랑방아 떡방아' (회장 조영숙) 회원들이 농한기를 맞아 떡케이크 재능기부 봉사를 실시하여 이목을 끌고 있다. 18일 벽골제 권역마을에서 열린 봉사 활동은 회원 10여 명이 참여하여 과일 떡케이크 30여 점을 만들어 경로당 20개 소와 돌봄이 필요한 세대 10가정을 선정, 나눔행사를 가졌다. '사랑방아 떡방아'는 2016년 7월 김제시 평생학습 동아리로 등록하고 정규 모임을 지속적으로 가지면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먹음직 하고 보양적인 갖가지 예쁜 떡을 만들어 간식봉사를 통한 재능기부 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지역의 여타의 사회단체들과 연계하여 협력을 통한 봉사문화 확산에도 기여한 바 크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보건소, 가을철 감염병 쯔쯔가무시증 주의 안내

김제시 보건소(소장 김형희)는 가을철에 주로 발생하는 쯔쯔가무시증 예방을 위해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쯔쯔가무시증은 감염된 달팽이 유충에 물려 발생하는 질환으로, 전체 환자의 90% 정도가 가을철에 발생한다. 쯔쯔가무시증을 예방하기 위해 야외 활동 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귀가 즉시 옷을 갈아입고 샤워나 목욕을 하며, 물린 자국을 없애는지 확인한다. 김제시 보건소를 비롯하여 지소, 진료소에서 해충 기피제를 받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소연숙 보건위생과장은 "쯔쯔가무시증을 비롯하여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 진드기 매개감염병은 예방수칙 준수를 통해 예방이 가능하므로 발열, 오한, 근육통, 복통, 물린 자국 등의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수칙은 피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옷 제대로 입기, 기피제 뿌리기, 풀숲 피하기, 작업 후 옷 털고 씻고, 빨래하기 등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선한 영향력' 확산 기여

현대차 전주공장, 청년층 창업 지원 푸드트럭 선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공장장 문정훈) 노사가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층 창업 지원을 위해 선물한 푸드트럭이 대를 이어가며 '선한 영향력'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어 화제다. 지난 2017년 이 회사 노사가 6천 만원의 사회공헌기금을 쾌척해 시작한 이 사업은 취업난에 시달리는 전북지역 청년들에게 푸드트럭 1대 운영권을 선물해 창업에 필요한 종자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운영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취업난으로 그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왔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는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평화사회복지관과 함께 2년 전 공모전 방식으로 시진 참가신청을 마감

한 결과 전주시에 거주하는 박 모 씨(남, 35세)가 첫 운영자로 선정됐다. 박씨는 올해 2월까지 전주시와 완주군을 넘나들며 꼬치야 등을 판매해 왔으며, 목표했던 종자돈 마련에 성공해 작은 가게를 창업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틈날 때마다 전북지역 내 각종 사회공헌 행사에 참여해 왔으며, 자신의 푸드트럭과 요리실력을 심분 활용해 주변 어려운 이웃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선물했다. 시진2에 참여해 박씨의 바통을 이어받은 건 전주대 창업지원단이다. 그 중 첫 주자로 전주대 한식조리학과 박현석 최봉석 씨 2명이 참여 중인데, 이들 역시 각자가 남다르다. 전북 아메리칸 수제 핫도그를 판매해 뉴 삼아 전주대 캠퍼스에서 최근 푸드트럭 문을 연 이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창업 중

자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나눔에도 적극 앞장서겠다는 생각이 다. '배고프니까 청춘이다'라는 통통 튀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이들은 배고픈 학교 친구들에게 가성비 좋고 영양 많은 음식을 대접하는 게 1차 목표고, 좀 여유가 생기면 시진 선배의 사례를 교훈 삼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나눔 활동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관계자는 "기브 앤 테이크(Give & Take) 문화에 익숙한 밀레니얼세대이다 보니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으면 다른 누군가에게 베푸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시진 3, 시진4로 이어지면서 우리 푸드트럭이 이들 밀레니얼세대를 중심으로 '선한 영향력'을 확산시켜 나가는 좋은 매개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재단법인 김제사랑장학재단은 18일 김제시청 2층 상황실에서 제37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300억원의 장학기금 조성"

제37회 김제사랑장학재단 이사회 개최 서울장학숙 운영규정 제정 등 사업기반 마련

재단법인 김제사랑장학재단(이사장 박준배)은 18일 김제시청 2층 상황실에서 제37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19년에 장학재단에서 추진한 과감한 장학금 등 12개 장학사업 운영 성과 청취에 이어 김제지평선장학숙(서울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등 8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장학재단은 2019년 한해에도 다양한 장학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경제사정 악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학업에 열중하는 지역출신 인재들을 위한 서울장학숙 매입 등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의 인재들이 수도권 대학에 더 많이 진학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됨으로써 지역발전과 국가성장을 이끌어 나갈 미래인재양성의 완성을 일궈냈다는 임원들의 호평을 얻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공공급식의 식재료 생산하는 산지 체험 진행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센터장 박봉산)가 공공급식의 식재료를 생산하는 산지 체험을 진행했다. 18일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는 지난 15일, 공공급식 참여 공공기관 영양사, 담당자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산지 체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공급식의 식재료를 생산하는 이서두레농장에서 이루어진 이번 산지체험은 재배 시설 견학과 함께 생산 농가들의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직접 수확한 농작물로 드레싱 소스를 만들어보는 등 공공급식 농산물이 생산되어 공급되고 조리되기까지의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체험이 이루어진 이서두레농장은 지역 어르신들의 생산적 복지 활동을 돕는 귀농인들이 함께 도와 운영하고 있는 완주군 대표 공동체 농장이다. 특히, 생산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참여자들이 생산 과정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환경 농업을 지향하는 로컬푸드의 가치에 공감하기도 했다. 또한, 생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는 지난 15일, 이서두레농장에서 공공급식 참여 담당자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산지 체험을 진행했다.

산지도 상황에 따라 변수가 많은 급식 소비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듣는 등 서로를 이해했다. 공공급식지원센터 관계자는 "전북 혁신도시 공공기관 중 완주로 이전한 7개 기관이 모두 올해 로컬푸드 공공급식에 참여하고 있다"며 "도농 상생의 가치를 공감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리를 좁혀 나가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이중복 기자

완주군,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 행사 개최

완주군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다. 18일 완주군은 이서면 금림리 소재의 국립농업과학원 일원에서 지난 15일 2019년 숲가꾸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완주군과 전라북도를 비롯해 군 직원, 완주군산림조합 등 6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사전에 준비한 고품질합비료를 분칠 '혁신도시 미세먼지 및 악취저감' 목적으로 진행한 식목일 행사지에 살포했다. 앞서 완주군은 올 봄 식목일 행사장에 아까시나무, 밤나무, 백합나무 등 총 2570본을 식재한 바 있다. 행사에 참여한 군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숲가꾸기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도시녹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완주군은 지난 4월 삼례읍 후정리 수도산 근린공원 일대 3.1ha 면적에 도시숲 조성을 완료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완주=이중복 기자

완주군,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 등 지원

내달 31일까지 접수

완주군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18일 완주군은 농업인에게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 등 구입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역종진,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녹비작물 종자·유기농업자재·자재원료·천적 등을 구입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유기농

업자재 신청은 오는 12월31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접수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녹비작물 종자의 경우에는 친환경인증농가 뿐만 아니라, 관행농가도 신청이 가능하다. 유기농업자재·자재원료·천적 등은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친환경인증 농가만 신청가능하다. 이규진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은 "유기농업자재 지원은 친환경인증 농가의 경영비 부담과 친환경인증 면적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